

CSU Monthly 2026년 8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 7월 첫째 주: 조선대 학생들, 한라산 넘어 제주·전남 240km 국토순례 나선다
- 7월 둘째 주: 조선대 '80인의 조선인' 한라산 올라 미래 100년 향한 힘찬 도전
- 7월 셋째 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5기 이사회 출범, 이사장에 “안병욱 교수” 선임**
- 7월 넷째 주: 앵커사업단, 전남광주 '모빌리티·에너지 융합전환형' 초광역 성장엔진 시동
- 7월 다섯째 주: '온마을이음학교 동구 미리대학' 성료

학교법인조선대학교 5기 이사회 출범, 이사장에 “안병욱 교수” 선임



안병욱 이사장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제5기 이사회가 출범해 2026년 7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7월 5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는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안병욱 이사가 이사장에

선출됐다.

안병욱 신임 이사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역사연구회 창립 회장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안병욱 이사장은 “1946년 호남에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을 설립한 7만2천여 설립동지회의 제1창학 열망과 1.8 학원 민주화를 통한 설립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염원, 그 열망과 염원의 기초위에 세워진 조선대학교가 자랑스러운 8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5기 이사회와 구성원들과 뜻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선대법인의 제5기 정이사는 ▲안병욱 이사장을 비롯해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김규탁 장흥우리병원 이사장 ▲김성재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으며, ▲김선아 이사(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신윤숙 이사(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근우 이사(법무법인 로컴 변호사) ▲박미경 이사(사)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채웅 이사(천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임됐다.



학교법인조선대학교 5기 정이사

조선대, 중국 항저우에 '세종학당' 설립 2026년 신규 지정 쾌거

중국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과 연계해 공동 운영
디지털·청년 중심 도시 항저우에 한국어·한국문화 공공 교육 거점 마련



조선대-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세종미래기술연구원 MOU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 전경

디지털 혁신 도시 중국 항저우에 조선대학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거점이 들어선다. 조선대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신규 세종학당 지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중국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시에 '항저우 세종학당'을 설립한다.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세종학당재단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지난 6월 29일 전 세계 29개소를 2026년 신규 세종학당으로 지정했다. 조선대학교는 중국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원장 유빈)과 연계형 세종학당을 함께 신청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항저우시는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이 자리한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의 중심지로, 청년 인재 유입이 활발한 도시

다. 최근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대학생 및 직장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신력 있는 한국어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동 운영기관인 항저우공수구공대미래기술연구원은 저장공업대학교(浙江工业大学)와 항저우시 공수구 인민정부가 공동 설립한 전략적 고수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이다. 조선대학교는 연구원이 보유한 최신식 전용 강의실과 문화체험실,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수강생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정규 운영에 돌입한다. 현지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세종한국어' 기반 정규 언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한식·태권도·K-POP·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매월 운영할 예정이다.



故 김종중 명예교수, 시신기증·기부로 남긴 '마지막 수업'

평생 해부학 교육·연구에 헌신... 의학 발전과 병원 신축 위해 3천만 원 기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故 김종중 명예교수가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은 유족이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참스승의 길을 남겼다.

지난 7월 13일 별세한 김 명예교수는 평생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며 수많은 의사를 양성했다. 고인은 생의 마지막에도 자신의 몸을 의학교육과 연구에 맡기며 제자들과 후학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시신기증은 의학도들이 인체의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인의 책임을 배우는 해부학 교육의 핵심적인 기반이다. 김 명예교수의 숭고한 뜻은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의학 연구와 의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고인은 2017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러한 나눔의 뜻은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금은 해부학 교육·연구

구 기반 강화와 조선대학교병원 신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 명예교수는 1974년부터 2016년까지 42년간 조선대 의과대학에 재직하며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제58대 대한해부학회장을 역임하며 국내 해부학 연구와 학문 발전에도 기여했다.

대학 내에서는 교수평의회 의장과 보건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는 초대 민주화운동연구원장을 맡아 대학의 민주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데 힘썼다.

김춘성 총장은 “김종중 명예교수님께서서는 평생 해부학 교육과 연구에 헌신하시며 수많은 의료인을 길러내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소중한 뜻을 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남기셨다”며 “교수님의 숭고한 실천은 생명의 존엄과 의료인의 책임을 일깨우는 참스승의 가르침으로 우리 대학과 제자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시신기증과 발전기금 기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함께해 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인의 뜻이 해부학 교육과 연구, 조선대학교병원의 발전으로 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도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소중히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nstagram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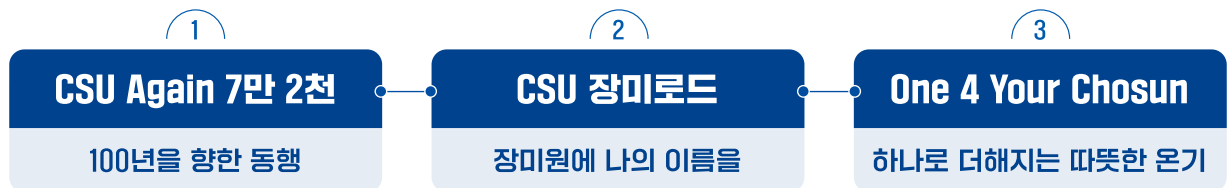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